



#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이그나티오스 안티오키아의 주교순교자

## 루가 제15주일

성 크세노폰 수사와 가족

제7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I 디모테오 4, 9-15 / 봉독서 396

· 복음경: 루가 19, 1-10 / 132. B 8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이그나티오스 안티오키아의 주교순교자(성해수습)

성 사도들 바로 직후의 교부들과 순교자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안키오키아의 대주교이신 성 이그나티오스 테오포로스입니다. 이그나티오스 성인은 안티오키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고 로마의 경기장에서 성난 로마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야수들에 의해 순교당하셨습니다. 성인의 시신 중 수습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 속에 수습하여 매장을 위해 안티오키아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1월 29일을 성인의 성해 수습을 기념하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오스 성인의 남겨진 이 유해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있는 가장 명예로운 것이 순교자들의 거룩한 유해라는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대주교께서는 “이 거룩한 유해에서 태양을 향해 놓은 깨끗한 거울처럼 빛이 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낡은’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명절인 설날은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삶의 전진을 위해 우리의 문제점들을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오지 않고,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는 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잃은 것이다.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도 잘 알고 도달하려는 시점에, 지나가버리고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세상에서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영적 사람을 가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물주께서는 사람을 당신과 ‘낡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들에게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 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골로사이 3:9~1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로가 표현하고 있는 ‘낡은 인간’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의 인간 본성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낡은 인간, 우리 자신의 타락한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닮은 새로운 우리 자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실하고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어서 영적으로 발전합시다.

올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노력하여 우리 안에 우리들의 결함들과 나약함을 뽑아버리고 그리스도교의 덕들을 심읍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성사들의 은총에 충만하게 되고, 성찬예배에서 성삼위 하느님을 예배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나라가 찬미되는’ 것입니다.

자애로우신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한 시간도, 일 분도 헛되지 하지 맙시다.

평화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각각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

## 하느님은 동사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명사는 놀랍다. 곧, ‘주님, 구원자, 구세주, 빛 중의 빛’ 등등.

우리 신앙의 형용사는 자극하고 격려하며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곧, ‘고귀한, 신성한, 거룩한, 성스러운’ 등등.

명사와 형용사는 멋진 단어이다. 이런 용어로써 우리는 어떤 대상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하지만 명사는 어떤 것도 해내지는 못한다. 그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따름이다. 단지 명사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동사가 필요하다. 동사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스도교는 그저 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동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하기에 최고인 동사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다른 그리스도교적 동사로는 이를테면, ‘섬기다, 주다, 나누다, 치유하다’ 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사는 ‘따르다’이다. 곧, “나를 따라 오라”이다.(마태오 9:9)

시리아인 이삭 성인(7세기)은 동사를 써서 아래와 같이 충고하였다.

- 박해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박해를 받으라.
- 남을 호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라.
-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기보다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라.
- 압제자가 되기보다는 압제당하는 사람이 되라.
-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라.

▶ 아타나시아



## 소 식

### 대교구

#### ■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1월 31일~2월 2일(초, 중, 고등부)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40,000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가정 성수식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성스러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 성수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11일 토요일에 로만 신부님 집전으로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슬라브인 블라디슬라브 유아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1월 30일(목) 성 대 바실리오스, 성 대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3대 교부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